

俛仰 宋純의 漢詩 研究*

권순열**⁴⁵⁾

<차 례>

1. 서언
2. 絶望과 悲慨의 美學
 - 1) 絶望의 歎息
 - 2) 悲慨의 美學
3. 諷刺와 曠達의 美學
 - 1) 완곡한 諷刺
 - 2) 曠達의 美學
4. 결어

<국문초록>

송순은 면양정 시단의 주인공으로 호남시단을 풍요롭게 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작품 중 가사와 시조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한시는 뛰어난 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송순은 어려서부터 측은지심이 강하였다. 그 단적인 예가 9세 때 지은 「곡조문」이다. 송순은 이 짧은 글 속에 절제된 비감을 담았다. 송순의 사물에 대한 측은지심은 애민정신으로 이어졌다. 그의 애민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은 「문인가곡」, 「문개가」 등이다. 「문인가곡」은 한 노파 가정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계속되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문개가」는 연산군 시대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거지 신세로 전락한 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선비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혹독해 하루아침에 집안의 재산은 결딴나고 가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죽지 못하고 사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비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송순이 불렀던 노래들은 타락한 사회, 절망의 시대를 기록한 시로 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50여년 동안이나 관직에 머물며 많은 복을 누렸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 두 아들을 잃는 상명지통을 겪었다. 특히 진원현감이었던 차자 해용의 죽음은 신거무 전설과 관련이 있다. 이 전설의 내용을 보면 송순에게는 피를 토할 정도의 억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순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복수가 복수를 낳는 보복의 고리를 끊었다. 이런 그의 인품은 만고의 사표가 되기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송순이 그때 남긴 「곡자문」은 절제된 감정의 유로 속에 비개(悲慨)의 미(美)를 극대화시켰다.

송순은 관직 생활 동안 정적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희롱을 통해 상대방을 일깨우고, 풍자를 통해 신랄하게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특히 을사사화를 당해 쓴 「상춘가」는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송순은 이 시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원망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송순은 ‘면양정’이라는 자신만의 이상적 공간을 조성하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를 삼언시 「면양정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송순의 시학은 「면양정가」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송순은 이 시에서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송순은 이처럼 자신을 감돌고 있는 상황과 운명을 극복하고 도연명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면양정가」는 광달(曠達)의 미(美)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곡조문, 문인가곡, 상춘가, 면양정가, 비개의 미, 광달의 미

1. 서언

宋純(1493, 성종 21~1582, 선조 15)의 자는 守初이며, 호는 俛仰企村이다. 송순의 삶과 문학은 호남을 자양으로 형성되고 꽃을 피웠다. 송순의 가문이 남쪽으로 이거하여 자리를 잡은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고조인 希璟이 고향인 충청도를 떠나 담양에 자리잡고 동생 龜도 영광군 森溪(현 장성군 삼계)로 이거한 것으로 보면 이미 호남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조선왕조에 대한 不服臣으로 은둔처를 찾아 호남으로 이거했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미화되고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는 인물 연구나 가문 연구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무튼 송순의 가문이 남쪽으로 이거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가문을 중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가정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그 후 송흙, 박상, 박우, 송세림에게 나아가 학문을 크게 진전시켰다. 그런데 송순의 학통에 대해 박상을 거쳐 조광조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¹⁾

송순이 활약했던 때는 극심한 사회 변동의 시기였다. 그래서 송순도 환로 생활 중 큰 좌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50여년의 환로 생활은 단순히 官運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송순이 개성유수를 그만두고 귀향할 때의 자세와 면양정에서 은둔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후인의 귀감이 되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 이종권, 『俛仰亭 宋純 研究』, 開門社, 13쪽 참조. 박상이 사림 세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그의 정신이 기묘현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박상이 조광조에게 배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상(1474, 성종 5~1530, 중종 25)과 조광조(1482, 성종 13~1519, 중종 14)의 생애를 보면 박상이 조광조보다 8세가 연상이다. 박상이 8살이나 연하인 조광조에게 배웠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나 일관적 관념으로 보나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송순의 시조와 가사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송순의 560수²⁾ 한시는 시조와 가사의 빛에 가리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가 한사에서 보여준 애민의식, 悲慨와 曠達의 美學은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가 세운 문학적 전통은 후배들을 통해서 더 치열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國朝詩刪』은 물론 『大東詩選』에 이르기까지 한 작품도 수록된 것이 없다. 이러한 평가는 특히 삼언시 「俛仰亭歌」가 이룩한 시적 성취로 볼 때 너무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거무」 전설은 송순과 송순 집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전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 과정에서 빚어진 몇 가지 오류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2. 悲感과 節制의 美學

1) 絶望의 歎息

송순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존재에 대해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범상히 보아 넘기지 않았다. 그 원인을 깊이 추구해서 기어이 책임의 소재를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한 가지 일화가 남아 전하고 있다.

我人也	나는 사람이요
汝鳥也	너는 새이니,

2)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286쪽 참조.

鳥死人哭 새의 죽음을 사람이 곡함은
 義爲不可 의리가 맞지 않으나,
 汝由我而死 네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
 是以哭之 이 때문에 곡하노라.
 「哭鳥文」³⁾

辛酉(1501, 연산군 7)年 송순이 9세 때 지었다고 하는 「哭鳥文」이다. 짙막한 단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노래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⁴⁾ 하지만 노래로 보기는 어렵다. 전혀 운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제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문의 경우도 운에 맞추어 시의 형태로 지은 것도 있다. 이 경우는 시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 「哭鳥文」은 詩의 범주에 넣을 수 없고 文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한문으로 지은 제문을 한글로 번역한 후 詩歌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 「哭鳥文」은 송순의 惻隱之心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 측은지심이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다. 그래서 생명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욕이 가리게 되면 이 마음을 보존할 수가 없다. 이 새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송순의 물욕이 작용했었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송순이 물욕에만 집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새의 죽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그것을 안타까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그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애잔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갖게 된 것이다.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측은지심이 바로 仁을 실천할 수 있는 실마리인 것이다. 아무튼 이 일화로 볼 때 송순은 섬세하고 다감하면서도 책임의식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훗날 백성을 아끼고 백성의 고통을 함께 하는 愛民精神으로 이어졌다. 송순의 애민정신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시에 대

3) 宋純, 『俛仰集』, 卷之四, 雜著.

4) 이종건, 『俛仰亭 宋純 研究』, 開門社, 1983, 117쪽 참조.

한 관심은 스승인 놀재 박상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송순이 평생 조금이라도 방향을 안 것은 전적으로 스승 박상이 인도해 주신 덕에 힘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⁵⁾ 송순은 그가 처한 폭정의 시대를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 시대의 아픔을 예리하게 갈파하고 이를 미적으로 승화시켰다.

日暮殘村行路稀	날이 저문 쇠잔한 마을에 길 가는 사람도 드문데
墻外哭聲來無數	담장 밖에서 곡소리가 수없이 들려오네.
聞是西隣第幾家	듣자니 서쪽의 몇 번째 집인데
無食無衣一窮姥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는 궁한 할미가 살고 있네.
掩卷垂淚久咨嗟	책을 덮고 눈물을 드리우며 오래 탄식을 하노니
此姥盛時吾親覩	이 할미 한창 때를 나도 보았네.
憶昔朝廷善政初	생각하면 옛날 조정에서 선정을 펼 때에는
必使長者知吾府	반드시 덕 있는 이를 시켜 우리 고을을 다스리게 했네.
差科正來民力均	차역과 부세가 바로잡혀 민력이 균평했고
一年餘食盈倉庾	일 년의 남은 곡식이 창고에 가득했네.
西家饒財一里最	서쪽 집의 넉넉한 재산이 한 마을 으뜸이어서
糶夫糶女填門戶	곡식을 팔고 내는 남녀가 문전에 가득했네.
鷄豚伏臘燕鄉閭	닭과 잔치로 복랍에는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는데
前庭後街羅歌舞	앞뜰과 뒷골목에는 가무가 벌어졌네.
從前時運有陸降	예로부터 시운은 오르고 내림이 있으니
斯民計活有散聚	이 백성들의 삶도 흩어지고 모임이 있었네.
召父不來杜母去	소부가 오지 않고 두모가 가니
始信苛政浮猛虎	비로소 가혹한 정치가 사나운 범보다 심함을 알았네.
朝破一田備東責	아침에는 논 하나를 없애 동쪽의 문책에 대비했는데
曠撤一家充西取	저녁에는 집 하나를 철거해 서쪽의 취함에 충당했네.
日復有日夜復夜	날마다 또 날마다 밤마다 또 밤마다
暴政毒令加蜂午	포악한 정치와 독한 명령이 벌떼보다 더했네.
甕盎皆鳴機杼空	항아리와 동이가 모두 울리고 베틀도 비어
竈上久已無錡釜	아궁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솔이 안 걸렸네.
枷夫械子置牢獄	남편도 자식도 형틀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고
鞭餘肌肉皆臭腐	채찍 맞은 나머지 살갓이 모두 썩은 냄새가 났네.

5) 黃胤錫, 「企村先生宋公家狀」, 『俛仰集』, 卷之五, 附錄 참조.

人生到此理極難	인생이 이에 이르니 생계가 너무 어려워
不如死去埋厚土	죽어서 흙에 묻히는 것만 못하였네.
呼天終日哭籬下	종일토록 하늘을 부르짖으며 울타리 밑에서 우는데
天猶不應更誰怙	하늘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데 다시 누구를 믿으리오.
嗚呼汝命誠可哀	아아 그대의 운명이 참으로 불쌍하니
聞者孰不增恚怒	듣는 자 누가 화를 내지 않으리오.
方今國家慎賞罰	이제 막 국가가 상벌을 신중히 하여
君王仁澤臻舜禹	군왕의 어진 혜택이 순과 우임금에 이르렀네.
我當爲爾陳闕下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대궐에 진술하여
酷吏不啻膏諸斧	가혹한 관리의 기름이 도끼에 묻게 할 뿐이겠는가.
夫還子放復舊居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도 방면되어 옛 집으로 돌아와
殘年敗業猶足樹	여생에 망가진 가업을 그대로 세우게 하리라.
老婦掉頭哭且言	노파가 고개를 흔들며 울면서 하는 말이
隣家丈人還余侮	이웃집 어르신이 도리어 나를 업신여긴다 하네.

「聞隣家哭」⁶⁾

서두의 노파 울음소리는 이 시의 배경을 이루면서 그 다음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두보의 시에서 이미 보여준 수법이기는 하나 아주 뛰어난 솜씨로 보인다. 이 노파의 가정도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다. 召信臣과 杜詩 같은 훌륭한 목민관이 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는 살림에 여유가 있어 이웃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 정도였다. 그런데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와 행포가 그치지 않았다. 계속되는 횡포를 묘사한 ‘日復有日夜復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송순은 그의 시대가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보았지만 사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노파도 가족을 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모두 허사였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가렴주구는 계속되고 제도적 장치는 크게 개선된

6) 宋純, 『俛仰集』, 卷之一, 詩.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폭정으로 인해 망가진 한 노파 가정의 몰락은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난 비탄은 절망의 노래로 그의 시대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不如死去埋厚土’는 삶이 죽음보다 더 혹독한 시련임을 말하고 있다. 절망의 시대에 불렀던 송순의 이 노래 속에는 백성들의 삶과 아픔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느껴지는 悲感은 백성들에 대한 애민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曉夢初罷驚剝啄	새벽꿈이 막 깬데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推枕起聽歌聲長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들으니 노래 소리가 유장하네.
呼兒走出問所由	아이를 불러 달려 나가 까닭을 묻게 하여
知是老丐謀朝糧	늙은 거지가 아침 동량을 하러 온 것을 알았네.
不憂不哀乞語傲	걱정도 않고 슬퍼도 않고 구걸하는 말이 거만한데
腰下只見垂空囊	허리 아래에는 다만 빈 전대만 드리웠네.
招來致前詰其由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해 연유를 묻는데
百紵一衣無下裳	백 군데나 터진 한 저고리에 하의도 없네.
云我曾爲富家子	하는 말이 내가 일찍이 부잣집 자식으로
衣餘篋中粟餘場	옷은 상자에 남았고 곡식은 마당에 남았었네.
膝下兒孫床下妻	슬하엔 자손이 있고 방에는 아내가 있어
人生一世無他望	사람이 태어나 한 세상 동안 달리 바랄 것이 없었네.
鬻牛行酒聚比隣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해 이웃을 모으고
嬉嬉笑語頻開張	희희낙락거리며 웃는 자리가 자주 열렸네.
謂是天公賦命好	생각하기를 하늘의 타고난 운명이 좋다고 하여
自擬基業傳無疆	스스로 이 기업을 한없이 전해 가리라 여겼네.
吁嗟人事苦不常	아아 사람의 일이란 괴롭게도 몇몇치 않아
甲子年間遇狂王	갑자년간에 미친 왕을 만났네.
朝生一法如蛇虺	아침에 만든 하나의 법이 독사와 같고
暮出一令如虎狼	저녁에 내는 하나의 명령이 호랑이와 같았네.
風雷行處不暇避	바람과 우레가 이르는 곳에 미처 피하지를 못했는데
無翼奈何高飛翔	날개가 없으니 어떻게 높이 날아가겠는가.
父祖經營百年產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경영했던 평생의 재산이
敗之一日猶莫當	하루에 결판이 나고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었네.
家破田亡餘赤身	가정이 파탄나고 전답이 없어지고 알몸만 남으니

升天入地無可藏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들어가 숨을 수가 없었네.
 妻東子西我復南 아내는 동쪽으로 자식은 서쪽으로 나는 또 남쪽으로
 雲分雨散情茫茫 구름처럼 비처럼 흩어지니 심정이 망망했네.
 飄零于今三十年 떠돈 지 어언 삼십 년이 되었는데
 死生憂樂已相忘 죽음과 삶 근심과 즐거움을 이미 잊었네.
 人間何處不可住 인간 세상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는가
 一杖一瓢行四方 지팡이 하나 바가지 하나로 사방을 돌아다니네.
 區區形骸知么麼 하잘 것 없는 몸뚱이가 무엇을 알리
 求人猶足救死亡 타인들에게 구걸을 해도 오히려 죽음은 면할 수 있네.
 腹中繼食飢不害 배속은 계속 먹으니 굶주려도 해가 되지 않고
 身上繼衣寒不傷 몸에는 계속 입으니 추위도 상하지 않네.
 更無餘憂來相干 다시는 남은 걱정이 와서 간섭하지 않으니
 優遊卒歲於康莊 큰 거리에서 느긋하게 놀며 한 해를 마치네.
 公侯將相縱有榮 공후나 장상이 비록 영화롭다 하지만
 君看前後紛羅殃 그대는 보라 앞뒤로 무수히 재앙을 당하는 꼴을.
 出門揮杖歌復高 문을 나서 지팡이 휘저으며 노래를 다시 높이 부르니
 白首意氣何軒昂 백발의 의기가 어찌 그리 도도한가.
 得喪已知不關我 얻고 잃음이 모두 나와 상관없음을 이미 알았으니
 莫言丐者皆尋常 거지라고 모두 범상하다 말하지 말라.

「聞丐歌」⁷⁾

이 시는 갑자사화(1504, 연산군10) 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신세는 거지로 전락한 한 선비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인지라 그는 달아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하루아침에 가산은 망가지고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목숨이 원수인지라 죽지 못하고 삼십 년을 사는 동안 인간들이 즐기치게 추구하는 명리가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타락한 권력과 비참한 현실은 참고 견딜 수 없는 비감을 자아내게 한다. 이 시의 창작 시기는 1529(중종 24)년 송순의 나이 37세 때이다. 이때는 혈기와 필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 宋純, 『俛仰集』, 卷之一, 詩.

그래서인지 소재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풍유와 해학이 명리를 초월한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悲慨의 美學

송순은 거의 모든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50여년이나 공직과 인연을 맺으면서 높고 낮은 중앙 요직과 주요 외직을 두루 역임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리로서 복은 더없이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분재기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불행이 그만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喪明之痛이라 한다. 子夏가 西河에 있을 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 운 나머지 失明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⁸⁾ 자하는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魏나라 西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편 魏文侯의 스승으로 있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것이다. 제자가 사상을 이어주는 분신이라면 자식은 가문을 이어주는 분신이다. 제자를 두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상을 전파할 수 없다. 당대에 잠깐 빛을 발하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고 만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교육자이었고, 교육에 심혈을 쏟은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문에 위기가 초래한다. 하지만 제자를 얻으면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자식을 얻으면 가문이 번성하고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식과 제자는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을 이어주는 분신이다. 그런데 송순에게 자식을 잃는 그런 불행이 찾아든 것이다.

또 장자 해관에게 건원릉 참봉을 제수하고, 또 차자 해용에게 진원 현감을 제수하여 편하고 영광스럽게 봉양하도록 했다. 그런데 연속 죽게 되자 장사를 지내고 슬픔으로 지냈다.⁹⁾

8) 司馬遷, 『史記』, 卷六十七, 仲尼弟子列傳 참조.

송순이 81세가 되던 해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송순의 두 아들이 연속으로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식의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두 아들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長子인 海寬의 자는 伯深이며 1546년 9월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次子인 海容의 자는 仲深이다. 1550년 송순이 평안도 순천군으로 귀양갈 때 이 두 아들이 侍從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이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몇 세에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찌 되었건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으로서는 불효요, 부모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런데 長城 진원에 송순의 둘째 아들인 海容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조 중엽쯤 진원 고을 하청산 아래에 단둘이 살던 늙은 부부가 100일 기도를 올린 후 다행히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람이라 하기 어려운 마치 거미 모습을 한 괴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신거무라고 불렀다.

신거무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아이와는 다르게 머리가 비상하고 힘이 장사라 항상 대장노릇을 했으나 무서움을 느낀 아이들이 함께 놀기를 두려워하니 자연히 외톨박이가 되었다. 점점 성장함에 따라 성격은 난폭해지고 행패가 심하여,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날리듯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아도 질겁하였으며 둘만 모이면 신거무 이야기가 화제였지만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진원현에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현감이 부임해 오기만 하면 이유없이 그날 저녁에 죽어 버렸다. 그리하여 고을 원이 공석인 상황이라 신거무의 행패를 막을 길이 없이 더욱 행패는 심해만 갔다.

이즈음 인접 담양에 송정승이라는 분이 낙향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지금 진원현은 신거무의 행패 때문에 백성이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으며 현감에 부임할 사람 또한 없다 하니 이대로 두면 폐현이 될 위기입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주청을 하였다. 당시는 정승의 아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고을 원님이 될 수 있었다. 평소 대의를 가르친 송정승은 이를 반대할 수 없어 진원현감으로 보내게 되었다. 송현감이 부임한 날 밤에 홀연히

9) 又授長子海寬健元陵參奉 又授次子海容珍原縣監 俾便榮養 既相繼以歿 而以埋遣哀。(宋純, 『俛仰集』, 卷之五, 年譜)

한 여인이 나타나 “신거무에게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하여 소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원님들이 모두 놀라서 죽고 말았습니다.”는 말을 했다.

송현감은 이튿날 신거무를 붙들어서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원인을 알 수 없이 송현감도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송정승은 아들이 무사하기를 빌었으나 3일 후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상여소리가 가까이 들려 올 때까지 바둑만 두고 있던 송정승은 상여가 마당에 들어온 후에야 관을 내려놓게 하고는 회초리로 관머리를 힘껏 때리면서 “너 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훌륭한 신거무를 죽였느냐.”고 호통을 쳤다. 정승의 눈에 상여 앞에 신거무가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거무는 자기를 높여 말해 주고 자기를 죽인 아들을 호통치니 비로소 온화한 표정으로 절을 하며 “오늘 대감댁 식구를 몰살하려 했는데 대감의 덕에 감복하여 그냥 돌아 갑니다.”라 말하고 가버렸다.¹⁰⁾

진원현에 전해 오는 신거무 전설의 일부이다. 이 전설은 여러 이야기소들이 결합되면서 변형된 것 같다. 아무튼 신거무 전설에 송순의 아들이 등장하고, 송순의 둘째 아들 海容이 진원현감을 지낸 것으로 보아 신거무 전설과 송순 가문과의 관련은 분명한 것 같다. 송순은 진원현에서 담양으로 넘어오는 상여를 보고 전혀 슬픔의 내색을 하지 않고 바둑만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송순의 본심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를 토할 심정이었지만 차마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송순이 보여준 처신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과락호 신거무를 처형한 해용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 그런데도 송순은 아들을 나무라고 오히려 신거무를 추켜 세웠다. 이런 처신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거무 전설이 지니고 있는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안사건을 넘어 민권과 관권의 충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압박민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관권이 승리했다. 그러나 송순의 집안으로 보면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엄청난 화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송순은 아들

10) 장성군사편찬위원회, 『장성군사』, 장성군, 2001, 871~872쪽.

을 죽인 원수인 신거무를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해소한 것이다. 여기에서 至人の 경지에 이른 송순의 인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들을 잃은 송순의 슬픔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汝哭我哭 네 곡은 내가 울어주지만
 我哭誰哭 내 곡은 누가 울어줄 것인가?
 汝葬我葬 네 장례는 내가 장사지내주지만
 我葬誰葬 내 장례는 누가 장사지내 줄 것인가?
 白首痛哭 백수로 통곡을 하는데
 靑山欲暮 청산은 저물려 하네.
 「哭子文」¹¹⁾

이 「哭子文」이 장자와 차자 중 어느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어느 한 아들보다는 두 아들의 죽음 후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 죽음은 언제나 애처롭다. 특히 자식의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설령 필설로 표현한다 한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송순의 「哭子文」은 자신의 슬픔을 아주 간결한 몇 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것으로 슬픔이 전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순은 이 「哭子文」에서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글이 갖는 힘은 언어들 속에 내포된 슬픔의 정서가 아니다. 송순이 배치한 상황의 설정이다. 송순은 단순한 인간 사회의 도리와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죽음이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자연이 순환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개체의 측면에서 볼 때는 거부하고 싶은 것이긴 하나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된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지만 미시적으

11) 宋純, 『俛仰集』, 卷之四, 雜著.

로 볼 때는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인식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新舊의 순서가 바뀌고, 父子의 차례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질서의 파괴는 인식의 체계를 흔들고 뛰어넘는다. 이런 질서의 파괴를 감당하기에는 인간의 감정은 내성의 폭이 너무 좁다. 때문에 그로 인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명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파괴되기도 한다. 송순은 그런 슬픔의 감정을 언어 자체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호소하고 있다. 단순한 이치로만 따진다면 부친이 먼저 죽고 자식이 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친이 먼저 죽어 자식이 장사지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송순의 경우에는 자식이 먼저 죽어 부친이 곡을 하고, 부친이 장사를 지내 주고 있다. 이런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현상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송순의 이런 장치와 외침은 견딜 수 없는 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大風捲水 큰 바람이 물을 말아 올리고
 林木爲摧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꺾이네.
 意苦若死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招憩不來 쉬어가게 불러도 오지 않네.
 百歲如流 인생 백년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富貴冷灰 부귀영화는 차가운 재가 되었네.
 大道日往 정대한 길은 날로 멀어지니
 若爲雄才 웅대한 재주는 어떻게 되었는가.
 壯士拂劍 장사는 검을 어루만지는데
 泫然彌哀 줄줄 눈물을 흘리며 슬픔이 가득하네.
 蕭蕭落葉 쓸쓸히 낙엽은 지고
 漏雨蒼苔 빗물은 푸른 이끼에 떨어지네.

「悲慨」¹²⁾

司空圖가 말하는 悲慨의 風格이다. 「悲慨」에 등장하는 ‘壯士’는 일반적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비극적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

12) 司空圖, 『二十四詩品』.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을 매만지며 절망에 빠져 개탄할 뿐이다. 여기서 비개는 개인적인 운명이나 슬픔보다는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비극의 정서에 가깝다. 그러므로 송순이 드러내고 있는 悲歎이 사공도가 말하는 비개의 의미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비극적 운명을 표현한 제문이나 시에 원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더구나 「哭子文」은 견딜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수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점이 많다. 처음에는 슬픔의 정서를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해 연속적으로 고양시켰다가 한 번에 극단적으로 이완시키고 있다. 게다가 슬픔의 정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靑山欲暮의 의미가 그러하다. 청산에 어둠이 왔다고 청산이 언제까지 어둠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송순이 비록 자연의 질서에 슬픔을 실어 보내지만 결코 그 슬픔이 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슬픔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여 극에 달한 비개의 미를 드러내고 있다.

3. 풍자와 曠達의 美學

1) 완곡한 諷刺

송순은 27세에 대과에 합격한 후 承文院權知副正字로 출발하여 77세 議政府右參贊으로 관직을 그만둘 때까지 약 50여년 관직과 인연을 맺었다. 50여년을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의 관리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모나지 않은 인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송순의 寬容과 大道의 삶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¹³⁾ 특히 아들들의 이름에 ‘寬’과 ‘容’을 넣어서 지은 것도 송순의 처세 철학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

13) 김성기,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39쪽 참조.

리고 자를 守初라고 한 것도 송순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字를 지을 때는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름이 갖는 의미를 살려 짓는다. 守初도 純자의 의미를 계승한 것이다. 純은 ‘순수하다’, ‘섞임이 없다’는 뜻이다.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것은 바로 하늘이 품부해 준 性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守初는 하늘이 품부한 처음 자리인 그 본성을 지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작명관이 송순의 인생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직접 짓기보다는 할아버지나 웃어른이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海寬과 海容도 송순이 직접 짓지 않고,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작명관이 송순의 인생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처세 철학만 가지고 그가 오래 관직 생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우선 원만한 인격과 노련한 처세술로 볼 수 있다.

하루는 진복창이 와서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참으로 소인입니까?” 선생이 대답하였다. “소인이다.” 진복창이 놀라 말했다. “비록 못났으나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선생이 희롱하여 말했다. “사람들이 군자를 소인이라고 하였다면, 아마 소인이 아닐 것이다.”¹⁴⁾

송순과 진복창의 대화이다. 송순의 행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잘 알려진 일화였던 것 같다. 송순의 대답은 직설적이고 단정적이다. 그러나 송순의 책임은 전혀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복창 자신이 먼저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순은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진복창을 희롱하고 있다. 그리고 진복창으로서는 전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송순은 이처럼 몇 마디 말로써 상대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제압

14) 一日復昌來問曰 人指我爲小人 我誠小人乎 先生曰 小人也 復昌驚曰 雖無狀 寧至是 先生戲曰 人指君子爲小人 則或非小人乎. (宋純, 『俛仰集』, 卷之五, 年譜)

해 버렸다. 그래서 송순을 일컬어 언변이 뛰어나다고 했던 것 같다.

송순은 정적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빚었다. 물론 이때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비분강개한 감정을 삭이고 풍자를 통해 세상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有鳥嘒嘒 새들이 시끄럽게 짹짹거리는데
 傷彼落花 저 떨어지는 꽃을 슬퍼해서네.
 春風無情 봄바람은 무정하니
 悲惜奈何 슬퍼한들 어찌할 것인가?
 「傷春歌」¹⁵⁾

송순이 을사사화(1545, 명종 원년)를 당해 쓴 풍자시이다. 언뜻 읽어보면 봄날의 정경을 노래한 시로 볼 수도 있다. 분노나 예리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으로 봄날의 아쉬움이 짙게 느껴질 뿐이다. 이 시를 구성하는 주요소는 새와 꽃과 바람, 이 세 가지이다. 먼저 새는 일반적으로 使者를 상징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의 분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들이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들이 슬퍼하는 것은 계절을 아름답게 수놓는 꽃과 같은 존재들이 이유 없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꽃은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를 상징한다. 여기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인 선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시기와 파괴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송순은 이 시에서 상대를 찌르는 격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원망을 담아 만세에 전하고 있다. 송순은 1521(중종 16)년에도 기묘사화(1519, 중종 14)에 관한 시를 썼다가 남곤의 일당인 崔世節에게 곤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¹⁶⁾ 이런 점으로 보면 송

15) 宋純, 『俛仰集』, 卷之五, 年譜.

16) 宋純, 『俛仰集』, 卷之五, 行狀 참조.

순은 그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2) 曠達의 美學

송순은 사림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신들과 마찰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도 심각했다. 그리고 때로는 권력의 폐해와 덧없음도 보고 느꼈다. 집안을 중흥코자 했던 염원도 중요했지만 새로운 이상 세계를 찾고자 하는 갈망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32세 때에 매입해 두었던 터에 41세에 정자를 지었다. 송순이 정자를 지었다는 것은 致仕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자는 선비들이 이룩한 가장 이상적 공간이며,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당시 권세가인 김안로와의 충돌로 환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 것이다.

俛有地 고개 숙이면 땅이 있고
 仰有天 고개 들면 하늘이 있네.
 亭其中 그 가운데 정자를 지으니
 興浩狀 흥취가 호연하네.
 招風月 풍월을 부르고
 搵山川 산천을 청해 보네.
 扶藜杖 명아주 지팡이 짚고
 送百年 백년을 보내리라.
 「俛仰亭歌」¹⁷⁾

송순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삼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三言詩라고도 한다. 송순이 41세 때인 1533(중종 28)년에 김안로를 탄핵하다가 물러나 지은 작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평이하고 까다롭지 않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송순은 주

17) 宋純, 『俛仰集』, 卷之三, 詩.

변의 평이한 언어들을 동원해 그가 추구한 세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룩하고자 했던 이상적 공간을 俛仰亭이라고 命名하였다. 이 俛仰은 천지와 우주를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짙막한 구조의 삼언시이지만, 시어선택에 있어 과감함을 보인다. 天地를 비롯해서, 浩狀, 山川, 百年 등의 시어가 기세를 담고 있다. 송순이 추구한 俛仰의 세계는 맹자 사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보아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¹⁸⁾

맹자가 말하는 君子三樂이다. 첫 번째는 가정의 즐거움이다. 양친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탈이 없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천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다. 우러러보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겼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즐거움이다. 지혜로운 인재를 얻어서 그를 교육하게 되면 후세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제자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에게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군자삼락은 첫 번째는 하늘에 달려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달려 있고, 세 번째는 남에게 달려 있다.

18)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孟子』, 盡心上)

군자삼락 중 두 번째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는 이 「俛仰亭歌」는 네 단락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은 면양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면양정의 배경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소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극복된 공간이다.

두 번째 단락은 그 공간에 정자를 짓고, 그 정자에서 느끼는 흥취를 설명하고 있다. 송순은 그 흥취를 한 마디로 浩然하다고 했다. 호연은 바로 浩然之氣를 말한다. 호연지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기운으로 정직함으로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천지간에 딱 차게 된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뜻에 가리게 되면 줄어들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송순이 면양정에서 호연지기를 느꼈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를 얻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송순은 이 시에서 ‘浩然’을 ‘浩狀’으로 표현하고 있다. 浩然을 쓸 때 ‘然’을 ‘狀’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송순은 ‘然’을 ‘狀’으로 쓰고 있다. ‘狀’은 ‘개고기 연’자이다. 그러나 ‘然’과 通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浩然’을 ‘浩狀’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의 다른 부분에서도 재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송순은 ‘고개를 숙이다’고 할 때 ‘俛’자를 쓰고 있다. ‘俛’자를 ‘부’로 읽으면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俛’자를 ‘면’으로 읽으면 ‘힘쓰다’는 의미로도 쓰지만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로도 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俯’를 쓴다. 물론 ‘俛’에도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에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같은 上聲이기 때문에 平仄에도 상관이 없다. 요는 송순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글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한 작품에서 두 번이나 파격을 택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면양정에 風月을 초대하고 山川을 청하고 있다. 송순은 면양정을 지어 놓고 풍월과 산천을 자신의 벗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면양정이라는 공간은 이미 산천이 펼쳐져 있고, 풍월이 임해 있다.

다시 말하면 면양정은 자연 환경이 이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송순은 굳이 풍월을 초대하고 산천을 청하고 있다. 이것은 송순이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네 번째 단락에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결의와 희열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희열은 자연과의 합일에서 오는 희열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수명으로 보면 41세의 나이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적들과의 갈등, 낙향 후 일상 생활인으로서의 고충 등 송순이 날마다 직면하는 문제와 고뇌를 간단히 극복하고 자연과 합일을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송순의 자세는 직면하는 문제나 고뇌와 맞서기보다는 내던지거나 뛰어넘는 결의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俛仰亭歌」는 曠達의 風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生者百歲	사람의 생애 일백 년
相去幾何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歡樂苦短	환락은 껍이나 짧고
憂愁實多	우수는 실로 많네.
何如尊酒	술통의 술을 가지고
日往煙蘿	날마다 운무 낀 숲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花覆茆簷	꽃이 초가집 처마를 덮었는데
疏雨相過	성긴 비가 지나가네.
倒酒既盡	술잔을 기울여 다 마시고
杖藜行歌	명아주 지팡이 짚고서 걸으며 노래 부르네.
孰不有古	누군들 죽지 않으랴만
南山峨峨	남산만은 높고도 높네.

「曠達」¹⁹⁾

사공도가 제시하고 있는 「曠達」의 의미다. 이 曠達은 세속의 영달이나 이해득실을 초탈한 경지를 말한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며 세상의 흐름과

19) 司空圖, 『二十四詩品』.

이치에 통달하여 눈앞에 닥친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세속의 예법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나 죽림칠현이 보여주었던 방종이나 일탈까지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연명이 실천했던 어느 정도 절제된 삶과 인생관이 광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삼재 송순은 이조참판이었을 때에 찬성 허자와 함께 합심하여 어진 이를 천거하다가 권신의 미움을 받아 외방으로 유배된 것이 5년이었다. 이로부터 항상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공의 서숙으로 가깝게 지내는 이가 매년 “지방 출신으로 재상이 된 사람치고 나는 서소문으로 나오는 자만 보았지, 남대문으로 나오는 이는 보지 못하였네.”라고 하였다. 대개 서울에 와서 벼슬한 이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늘 그 말을 싫어했다.

그 후 공이 개성유수를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서숙이 강가에 나와 전송할 때에 공이 술잔을 마주하고 말하길, “나는 지금 남대문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다.²⁰⁾

송순의 출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이다. 권력이란 원래 허망한 것이다. 집착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잡을 수도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앉았던 자리에 미련만 더하고 뒷모습이 추할 뿐이다. 송순은 이러한 권력의 속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초연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선비로서 修己治人の 이상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환로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옥과 화를 당할 위험이 높았다. 가장 좋은 길은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미련을 접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훌훌 털고 떠나는 것이었다. 송순은 실천으로 이런 의지를

20) 宋三宰純 爲吏曹參判 與許贊成磁 協心薦賢 忤於時貴 竄于外 凡五年 自是 常有棄官歸來之志 其庶叔與公昵者 每曰 郊居宰相 吾見出自西小門者 未見有從南大門而出者 蓋仕官于京者 至死不去 故云 然公每嫌其言 其自開城納節而歸也 庶叔者 送之江滸 公臨觴語之曰 吾乃今 得出南大門矣. (許筠, 『惺所覆瓿藁』, 卷二十三, 說部二, 惺翁識小錄中)

보여주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벼슬자리에 있다가 화를 당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마음에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양양불락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송순은 이런 부류와는 너무나 달랐다.

송순의 정치 역정과 출처관이 도연명의 경우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망한 권력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지킨 점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송순이야말로 관리로서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날 때를 알아 깨닫게 처신한 광달의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4. 결어

송순은 면양정 시단의 주인공으로 호남시단을 풍요롭게 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작품 중 가사와 시조는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560수나 되는 한시는 뛰어난 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순은 어려서부터 惻隱之心이 강하였다. 그 단적인 예가 9세 때 지은 「哭鳥文」이다. 짙막한 단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노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혀 운을 밝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래로 보기는 어렵다. 일종의 제문이다. 송순은 이처럼 짧은 형식 속에 절제된 비감을 담았다. 송순의 사물에 대한 측은지심은 애민으로 이어졌다. 송순의 애민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은 「聞隣家哭」, 「聞丐歌」 등이다. 「聞隣家哭」는 한 노파 가정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계속되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시대가 정의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계속된 것이다. 그리고 「聞丐歌」는 연산군 시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거지 신세로 전락한 한 선비의 삶을 소

재로 하고 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혹독해 하루아침에 집안의 재산은 결판나고 가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목숨이 원수인지라 죽지 못하고 사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비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송순이 불렀던 노래들은 타락한 사회, 절망의 시대를 기록한 시로 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송순은 50여년 동안이나 공직에 머물며 많은 복을 누렸다. 그런데 만년에 이르러 두 아들을 잃는 喪明之痛을 겪었다. 특히 진원현감이었던 차자 海容의 죽음은 신거무 전설과 관련이 있다. 이 전설로 보면 송순에게는 피를 토할 정도의 억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순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복수가 복수를 낳는 보복의 고리를 끊었다. 이런 인품은 만고의 사표가 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송순이 그때 남긴 「哭子文」은 절제된 감정의 유로 속에 비개의미를 극대화시켰다.

송순은 환로 생활 동안 정적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희롱을 통해 상대방을 일깨우고, 풍자를 통해 신랄하게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특히 을사사화를 당해 쓴 「傷春歌」는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송순은 이 시에서 격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도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원망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송순은 '俛仰亭'이라는 자신만의 이상적 공간을 조성하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를 삼언시 「俛仰亭歌」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송순의 시학은 무엇보다도 삼언시 「俛仰亭歌」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俛仰亭歌」는 삼언시의 짧은 구조 속에 시어의 선택이 과감하고 자유롭다. 이러한 시어 선택으로 시의 기세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송순은 이 시에서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송순은 자신을 감돌고 있는 상황과 운명을 극복하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살면서 守初의 지조를 지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송순은 도연명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俛仰亭歌」는 曠達의 美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 朴 祥, 『訥齋集』
宋 純, 『俛仰集』
林億齡, 『石川集』
許筠, 『惺所覆瓿藁』
『明宗實錄』
『長城郡史』
『孟子』
『荀子』
司空圖, 『二十四詩品』
劉勰, 『文心雕龍』

저서

- 강현모, 『한국 설화의 전승 양상과 소설적 변용』, 역락, 2004.
김성기,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이병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通文館, 1985.
이종건, 『俛仰亭 宋純 研究』, 開門社, 1983.
송준호, 『우리 漢詩 살려 읽기』, 새문사, 2006.
정익섭, 『改稿 湖南歌壇 研究』, 민문고, 1989.
팽철호,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李澤厚, 『미의 역정』, 윤수영 역, 동문선, 2003.

논문

- 권순열, 「놀이 박상 연구」, 『古詩歌研究』 第21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김성기, 「宋純의 歌詞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0.

——, 「宋純의 면양정삼언가 研究」, 『南冥學研究』 13, 南冥學研究所, 2002.

박병익, 「俛仰亭三十詠과 自然景物에 대한 美感」, 『古詩歌研究』 第21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박종우, 「16世紀 湖南 漢詩의 한 研究:宋純·林億齡·高敬命·鄭澈을 中心으로」, 고려대학 박사학위논문, 2005.

이정원, 「訥齋 朴祥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古詩歌研究』 第4輯, 韓國古詩歌文學會, 1997.

투고일 : 2013년 1월 3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Myonang Songsoon's Chinese Poetry

Kwon, Soon-yoel

Song Soon(宋純) is a leader of Myonangjeong(俛仰亭) poetry club and one of the main members who made Honam(湖南) poetry circles active. His Gasa(歌辭) and Sijo(時調) have been highly admired. However, his Chinese poetry has not been properly evaluated in spite of his aesthetic achievements.

Song Soon was compassionate for other people when he was young. For example, he wrote 「Gokjomun(哭鳥文)」 when he was nine. He expressed his sympathy moderately in the short writing. His compassion led to love of the people. 「Muningagok(聞隣家哭)」 and 「Mungaega(聞丐歌)」 definitely show his love to the people. The 「Muningagok」 described the collapse of an old lady's family. A corrupt official's greed continued day by day. So, to live is not better than to die. 「Mungaega」 described the life of a scholar who became a beggar because his family scattered under the Yonsangun(燕山君)'s reign. His reality was too harsh to him as his family's property went bankrupt in a day and his family scattered in all directions. However, he was compelled to live, which evoked sad feeling. The songs written by Song Soon are history of the corrupt society and the age of depression.

Song Soon was in luck as he was appointed as a government official for about 50 years. However, unfortunately he lost his two sons in his late

years. In particular, the death of the second son who was a governor of Jinwon(珍原) was related with the legend of Singumu. Mr. Song felt anger and resentment to the death. However, he broke the links of revenge through forgiving and reconciliation as a revenge may lead to another revenge. His good personality is a model for all generations. The 「Gokjamun」 he wrote at that time maximized the beauty of Solemnness(悲慨) in controlled emotion.

Song Soon had many conflicts with political opponents while he was a government official. Sometimes he awakened them through ridicules or he criticized absurdity of the time through parodies. The 「Sangchunga(傷春歌)」 he wrote during Eulsasahwa(乙巳士禍) implies many symbols, through which he delivered the sorrow and resentment of the society and the people to descendants.

He made an ideal space titled 'Myonangjeong' and expressed the world he pursued in a poem titled 「Myonangjeongga(俛仰亭歌)」.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his poetry is intensified in 「Myonangjeongga」. He pursued for free life without being restrained and Tao Yenming(陶淵明)'s life by overcoming his present conditions and destiny. In this respect,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Myonangjeongga」 revealed the beauty of Unrestraint(曠達).

Key words : Gokjomun, Muningagok, Sangchunga, Myonangjeongga, beauty of Solemnness, beauty of Unrestraint